

GALEX의 관측자료를 이용한 소행성 분류와 탐색

김주현, 김상준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소행성의 UV영역에 대한 연구는 자외선 우주망원경인 IUE의 관측자료를 이용하면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IUE에 의해서 관측되어진 소행성의 수는 17년간 50여 개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IUE이후에 활동한 자외선 우주망원경들도 그 양적인 면에서 소행성 관측에 대한 성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GALEX의 임무는 우주의 연대측정을 위한 외부 은하관측이 주목적이지만, 이의 자료를 이용한다면 새로운 소행성 및 혜성과 같은 태양계내의 미행성의 발견과 함께 현재 정립되지 않은 소행성 분류가 자외선 영역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진다. 또한, GALEX의 전천관측(All-sky Imaging)자료를 이용한다면,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구근접천체(NEOs)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높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보여진다.